이슬람文庫 1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무스림이 되는 길

리비아 이스람선교회 간행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슬람文庫 1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무스림이 되는 길

리비아 이스람선교회 간행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자비로우시고 자혜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도 무함맏과 그의 가족과
그의 교우(教友)들에게 알라의
축복과 평화를 내리게 하소서.

머 리 말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람教를 우리한국사회에 布教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스람精神의 올바른 이해, 전달입니다. 이러한 이스람정신의 올바른 이해전달은 오직 사도 무함맏(그분에 平和를)의 伝記와 言行録, 그리고 聖쿠란의 内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말로 널리 알리는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徐廷吉兄弟께서 사도 무함맏의 傳記와 言行録을 번역, 출간하여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聖쿠란의 번역은 오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한국 이스람教 中央聯合会 宣教部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기가 성숙할때까지 이스람의 教理, 倫理, 文学등에 대한 文庫판 소 선교책자들을 계속 発刊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무스림이 되는 길(How to be a Muslim)"이란 책자는 바로 이러한 이스란文庫 発刊 계획에 의해 번역, 출판된 첫번째 책자입니다. 본인은 동 책자가 무슬림이나 비무슬림이거나 간에 이스람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이스람에의 좋은 길잡이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 책자의 발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기원합니다.

1976. 6.

財団法人 韓国이스람교 中央聯合会

理事長 무함맏 술레이만 李 華 植

금년도 발간예정 이스람文庫

1. 무스림이 되는 길(HOW TO BE A MUSLIM)
2. 예배 입문(HOW TO PRAY)
3. 宗敎는 왜 믿는가(WHY RELIGION?)
4. 聖 예언자 무함만의 참모습(REAL STATUS OF HOLY PROPHET MUHAMMAD)
5. 이스람 기본 교습서(ELEMENTARY TEACHINGS OF ISLAM)
6. 오해받고있는 종교, 이스람(MISUNDERSTOOD RELIGION, ISLAM)
7. 이스람—우리의 選擇(ISLAM, OUR CHOICE)
8. 쿠란번역 30장(THE 30 PARTS OF THE HOLY QURAN)
9. 이스람과 휴매니즘(ISLAM and HUMANISM)
10. 이스람의 상업관(TRADE IN ISLAM)
11. 이스람의 정치론(POLITICAL THEORY OF ISLAM)
12. 무스림과 기독교세계(MUSLIM and CHRISTIAN WORLD)

자비로우시고 자혜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 우리 사도 무함맏과 그의 가족과 그의 교우(敎友) 들에게 알라의 축복과 평화를 내리게 하소서.

무스림이 되는 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2가지의 중요 목표를 탐구함에 있다 하겠으니,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완전하고 적극적인 삶을 누리게 하며, 인류를 위한 경험과 진보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가지 중요 목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 목표는 인격을 조절(調節)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만족(滿足)을 얻게 되며 모든 근심과 불안감(不安感)의 원인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유대(維帶)를 조직화(組織化)하여 평화와 조화(調和)와 이해(理解)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동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사회와의 협동(協同) 없이는 인생의 사명(使命)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람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해 신이 정해주신 종교입니다. 이스람은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인생의 궁극목적을 인식시키는 수단(手段)을 무함맏에게 (그에게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계시(啓示)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무함맏의 가르침에 따라 신의 대리인(代理人)으로서 자기의 뜻과 사명을 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람교의 기본(基本)은 신앙(이만)과 법률(샤리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신앙과 실천이라고도 합니다.

「**무스림이 되는 길**」은 이스람의 신앙과 법률(신앙과실천)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아야 하며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실천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적용(適用)해야 합니다. 이스람에서는 알기는 알고 있으나 실천 없는 지식은 불충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 무함맏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훌륭한 무스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스람교는 신앙이자 실천입니다. 즉 이스람교는 신앙과 실천의 종교입니다. 이스람교의 이 신앙과 실천의 관계는 체인과 같은 것으로써 체인의 고리가 한개만 끊어져도 전체가 끊어지는 이치와 같읍니다. 이스람교의 신앙과 실천은 또 수레의 2개의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은 말 뿐이고 실천하지 않는 무스림을 경고하여 「코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오 그대들 믿는 자여, 실천하지 않는 것을 무엇하려고 말 하느냐?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자는 신의 큰 미움을 사느니라.」

신 앙(이만)

이스람교의 기본교리는 신의 유일성(唯一性)에 대한 신앙입니다. 즉 무스림은 「한분밖에 없는 신」—영원(永遠)이며 절대(絶対)하신 유일신(唯一神)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한분밖에 없는 신」(신은 하나다)라는 신앙이야말로 이스

람교의 기본신앙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던 시대를 암흑(暗黑)의 시대라 함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읍니다.

지존지고(至尊至高)하시고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신(하나님—알라)이외의 잡신(雜神)은 없다는 이스람교의 기본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로지 진리(眞理)만을 위하는 성실성(誠實性)이 몸에 베이게 하며 또 고귀(高貴)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을 기억함으로써 마음의 안녕(평화)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알라)을 믿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부심(腐心)하지 않게 되며 무신론자(無神論者)들 처럼 물질적목적(物質的目的)에만 전심전력하지를 않읍니다.

「신은 하나다」라는 신앙은 사람으로하여금 신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갖게하고 인생의 목적을 의로움과 덕(德)의 수준으로 높혀주며, 또한 압박과 포악의 편이 되지 않게 하여줍니다.

또한 「신은 하나다」라는 유일신교(唯一神敎)의 신앙은 미신과 그릇된 믿음을 제거해주며, 마음의 만족을 알게 하여주며,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며, 생각하는 능력을 뒷받침하여 주며, 지식을 탐구토록 하여 줍니다.

또한 미신과 망상(妄想)의 방해 없이 시야(視野)를 넓혀주고 자신의 능력(能力)을 적절히 활용(活用)토록 하여 줍니다.

하늘, 지상, 지하, 해저(海底)의 세상 모든 것은 인간에 도움이 되도록 신이 창조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자연의 힘을 활용(活用)케 하여줍니다.

유일신교는 무스림에게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스림은 남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데 이는 무스림의 신에 대한 절대복종심(絶対服従心)이 인간에 대한 복종을 거절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스림은 또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어떠한 인간이나 동물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신만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무스림의 신앙은 강력한 의지(意志)와 불굴(不屈)의 인내심(忍耐心)과 신에 대한 신뢰(信頼)를 키워주며, 오직 신을 즐겁게하는 일에 모든것을 희생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줍니다.

신이외의 것엔 두려움을 모르게 하므로써 담대(胆大)해지고, 역경(逆境)과 고난(苦難)을 이겨나가게 하여 줍니다.

七 信(이스람교의 7가지 믿음)

1. 유일신을 믿는다.
2. 천사들을 믿는다.
3. 예언자들을 믿는다.

4. 경전(經典)들을 믿는다.
5. 최후심판일(最後審判日)을 믿는다.
6. 정명(定命)을 믿는다.
7. 부활(復活)을 믿는다.

1. 유일신을 믿는다

유일신을 믿는다 함은 「신은 하나다」라는 이스람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서, 단 한분뿐인 신에게만 예배하며, 신이외의 인물이나 사물(事物)을 신격화(神格化)하지 않으며, 신에게 절대복종하며, 신에 비길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코란」에 말씀하시기를 "신과 같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신만이 모든것을 듣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니라" 하셨읍니다.

무스림은 신은 삼라만상(森羅萬像) 우주의 창조주(創造主)임을 믿으며 신과 동격(同格)에 놓거나 신을 그 무엇과 비교하던가 하질 않읍니다.

「코란」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하늘과 땅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에 혼란(混亂)이 있으리라" 하셨읍니다.

「코란」(유일신의 장(章)1 수라 익흐라스)에 유일신을 집약(集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말하라— 신은 한분, 오직 한분뿐이시며,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시며, 신은 (누구의 몸에서) 낳어지는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으며, 신과 비교할 그 무엇도 없느니라"고.

2. 천사들을 믿는다

이스람교 기본신앙의 둘째번 것은 하느님의 천사들의 존재(存在)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觀念)은 물질적인식(物質的認識)의 한계(限界)를 넘지 못하므로, 물질적세계(物質的世界) 저 너머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理性)과 사고(思考)로써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부인(否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람교는 「신비한 힘」을 기본신앙에서 빼어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존재(靈的存在)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신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며(遂行), 신의 복음(福音)을 예언자에게 전달하는 일을하며, 인간들의 행실을 관찰해서 기록해 두는 일을 합니다.

「코란」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천사들) 지고하신 주님을 받들고 명령받은 모든 일을 하느니라" 하셨읍니다.

신의 천사들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참무스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관념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만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물질적인 것, 영적(靈的)인 것, 이 모든것이 다 진리입니다.

3. 예언자들을 믿는다. 4. 경전들을 믿는다.

이스람교 기본신앙의 다음것은 모든 예언자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자란 인간을 옳은 삶의 길로 인도하도록 모든 국가와 역사와 시대속에서 나온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인류최초의 예언자는 「아담」이고 최후의 예언자는 「무함맏」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한가지 목적, 즉 하느님의 복음인「이스람」— 신에 대한 절대복종— 을 선교하도록 하느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만 각 시대와, 인류사회의 진보와, 지적개발(知的開發)의 양상(樣相)에 따라서 예언자를 혁신(革新)한 방법의 차이(差異)는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소(微少)한 것이며 근본적 차이(根本的差異)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에게 있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다 같읍니다. 따라서 어느 한정된 예언자만을 믿고 딴 예언자들의 복음을 부인(否認)하는 행위는 참무스림의 행동이 아닙니다.「코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사도들의 구별을 두지 않았느니라" 하셨읍니다.

예언자를 믿는 신앙은 자연히 그들에게 계시(啓示) 된 「경전」 (經典)을 믿게되는 것입니다. 무스림은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하늘이 내리신 「경전」을 믿어야 합니다.

5. 정명관(定命觀)을 믿는다.

참무스림이라면 신(하느님)은 절대적주권자(絶対的主

權者)이며 우주의 모든 것을 유지(維持)하시는 분이라는 이스람교 기본신앙의 하나인 「정명관」(定命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정명관(定命觀)은 인간의 행동의 자유의사(自由意思)와 상호모순(相互矛盾)되지 않읍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장소와 시기에 그 어떤 원인으로 무슨 일이 발생함은 모든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기행동의 책임이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행동의 자유의사와 선악(善惡)을 구별하는 이성(理性)과 인생규범(人生規範)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모든것이 신의 섭리(攝理), 신의 뜻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자신이 알아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느님에게 있는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저마다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할때 그것은 타의(他意)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므로 자기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명관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해주며, 신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 모든 일의 성공을 신의 섭리(攝理) (하느님의 뜻)에 맡기도록 하여줍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신의 도움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지 신을 믿는 자세(姿勢)가 아닙니다. 신을 믿는 자세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는 서로 모순되지 않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를 믿는다」는 믿음이므로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하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 생계(生計)를 벌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하는 일의 성공을 희구(希求)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건 연구와 이해와 훌륭한 의도(意圖)에 의해서 결정(決定)하여, 하느님의 믿음으로 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코란」에 말씀하시기를 "어떤(일을) 결정 지었을때, 하느님의 믿음에 너를 맡기라" 하셨읍니다.

신에 대한 성실한 믿음은 열심히 일하는 동기(動機)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일에 대한 결정을 하고나면 목표달성(目標達成)의 옳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며, 조물주(하느님)와의 옳고 양심적인 유대를 맺게 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하면, 인간의 행불행(幸不幸)은 오직 하느님에 달려있는 것이므로(이스람교의 정명관) 모든 일에 근심과 불만 없이 만족감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최후심판일(最後審判日)을 믿는다.**

7. **부활(復活)을 믿는다.**

모든 인간은 사후(死後), 영계(靈界)에서 부활(復活)하며, 신앞에 불리어나가, 심판을 받으며, 살았을 때의 행동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읍니다.

이 「최후심판의 신앙」은 인간은 죽어 저세상에 갔을때 하느님앞에 불리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져야함을 깨우쳐 줍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이 최후심판일에 상벌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동의 책임이란 무의미(無意味) 한 것이며 행동의 자유는 그 중요성(重要性)을 갖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망(德望)도 부도덕(不道德)도 다를 것이 없게 되며, 근면(勤勉)과 나태(懶怠)가 똑같게 취급될 것이고, 누구도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동기(動機)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싸움터일진데, 사람이 옳고 바른 일을 하게끔 채찍질 하여주는 것이 바로 이 「최후심판일」의 신앙인 것입니다.

五　行

이스람교의 기본교리는 신앙과 법률로 되어 있으며 이를 「七信・五行」이라고 함은 앞에서 말한바 있읍니다. 그 법률(이스람法)을 이스람교의 실천사항이라고도 하며, 「七信・五行」은 마치 수레의 2개의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람교의 법률(샤리아)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 한 가족에서 비롯해서 전인류의 사회적관계(社會的關係) 에 걸친 생활와 규범(規範)을 소상히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람교의 법률은(이스람法. 샤리아) 옳은 인간, 행복한 가족, 강력한 사회, 완전한 인간생활을 창조하자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스람법은 개인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신의 숭배, 신의 명령, 금기사항(禁忌事項)을 통해, 곧은 길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신의 숭배」는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식(儀式)의 수단(手段)입니다.

또한 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신의숭배」는 인간의 사회적관계를 통솔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신념에서 옳은 길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신의숭배」의식은·인간의 신과의 관계와 사회적관계로 인도해주고 있읍니다.

「신의 숭배 의식」— 이것을 이스람교의 五주(五柱)라고 합니다.

「신의 숭배 의식」, 즉 「이스람교의 五柱」란—

다음 다섯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람교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오대의무(五大義務)입니다.

1. 신앙의 고백

즉 「알라외에 신은 없다. 무함맏은 알라의 사도이다」——이것을 무스림은 아랍원어(原語)로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맏울 라술—알라"라고 소리내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2. 예배(사랏드)
3. 구빈세(求貧稅. 회사금. 자캇트)
4. 단식(즉, 이스람 曆(히지라) 第9月(라마단聖月) 1개월동안)
5. 순례(즉 하즈. 일생에 한번 멕카순례)

1. 신앙의 고백

"알라외에 신은 없다. 마호멧은 알라의 사도이다"—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맛울 라술—알라」.

이 귀절을 완전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스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절을 선언함에 "마호멧은 알라의 사도이다"「무함맛울 라술—알라.」라는 귀절은 빼고 선언하는 사람은 무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라외에 신은 없다"는 선언하되 "마호멧은 신의 사도이다"는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스람교의 근본신앙을 파괴 혹은 말소시키려는 불경죄(不敬罪)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자(異端者)들이 파키스탄 일각(一角)에 있기는 있었읍니다만, 파키스탄정부는 근자에 와서 이를 불법화 (不法化)한바 있읍니다. 즉 이들은 무스림이 아님을 법으로 제도화(制度化)하였읍니다.

2. 예 배

1일 5회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신의 숭배의 가장 중요한 의식(儀式)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전에 꼭 우두(소정—小淨)를 하고 보아야하는데 "우두하지 않고 보는 예배는 신이 이를 받아드리시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우두는 필수조건이며 우두를 하지 않고 보는 예배는 무효입니다. 즉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두는 몸의 정결일뿐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聖)무함맏은(그에게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말하기를「정결은 신앙의 반(半)이다」라고 하였읍니다(「하디스」).

가벼운 운동이 건강에 좋듯이 예배는 혈액순환(血液循環)에도 좋읍니다.

예배는 여러가지 이(利)로운 점이 많은데, 합동예배(合同礼拜)는 단독예배(單獨礼拜)보다 27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죽어 저 세상에서「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예배때의 일렬횡대(一列横隊)는 무스림의 결속(結束)과 단결(團結)을 강화(强化)해주며, 사랑과 형제애(兄弟愛)의 마음 갖임을 북돋아 줍니다. 또한 빈부(貧富) 의 차별감을 없애주고, 통치자 피통치자가 어깨를 나란히 한줄로 서서, 한 마음 한 방향으로(메카를 향해) 예배를 봄으로써, 신앞에는 만민평등(萬民平等)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 회사(喜捨), 혹은 구빈세(求貧稅—자카트)

「이스람의 五柱」(이스람교의 五大義務)의 하나인 자카트는 자기 년수입(年收入)의 2.5%를 회사금으로 내는것을 말합니다.

이 자카트의 용도는, 가난한 무스림, 모스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선교사업, 모스크건립사업등에 쓰여집니다.

이 자카트는 히지라(이스람曆) 제9월인 단식성월 (斷食聖月—라마단聖月)이 끝나는 파제일(罷祭日—이ー드·울·피들) 합동예배전에 냅니다.

자카트는 하느님과의 영적교류(靈的交流)를 밀접하게 하여주는 숭배의식(崇拜儀式)의 하나입니다.

「코란」은 **자카트**의 중요성을 예배와 관련시키어, **자카트**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의무는 신에 대한 의무임을 깨닫게 한다 하였읍니다.

자카트는 신의 숭배인 한편, 재산을 정화(淨化)해 주고, 신성하게 해 주고, 또한 자선(慈善)의 미덕을 길러주며, 축재(蓄財)와 인색(吝嗇)의 질환(疾患)을 고쳐줍니다. 「코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재물에서 회사를 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의 재물이 정화되고, 신성하게 되리니.」 하셨읍니다.

4. 단 식

무스림은 라마단성월(聖月)에 단식하도록 명령이 내려져 있읍니다.

〈라마단聖月이란 히지라(이스람曆) 제 9 월이며 이달에 聖코란이 내려졌으므로 聖月인 것입니다.〉

단식은 결단력(決斷力)을 길러주며, 의지(意志)를 강화해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忍耐心)을 길러주고 유혹(誘惑)의 희생물(犧牲物)이 되지 않게 하여 줍니다.

단식은 또한 굶주리는 형제들을 동정하고 돕는 마음을 자아내어주므로, 단식은 정신적인 면(신앙) 만이 아니라 사회적면에서도 이(利)로움이 많은 것입니다.

5. 순 례

순례는 건강과 기타 모든 사정이 허락되는 무스림에게만 의무이며, 일생에 한번 성지(聖地) 멕카를 순례합니다.

「코란」에 발씀하시기를 "순례는 여행할 수있는 사람의 의무이니라." 하셨읍니다.

멕카순례는 만민평등, 피부색, 국적, 빈부의 차를 초월하는 이스람의 강점(強点)과, 무엇보다도 세계 무스림의 결속을 실증(実証)하는 숭고하고 장엄한 이스람의 대진리(真理)입니다.

순례는 이스람 오대의무(五大義務)의 제 5번째 의무입니다.

무스림은 오대의무외에 지켜야할 계율(戒律)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1. 금기(禁忌)

금주(禁酒), 간음(姦淫), 死肉(사육)과 돼지고기를 먹지 말것, 남의 돈을 불법적(不法的)으로 탐내거나, 고리대금(高利貸金), 사기(詐欺)를 금하지 않으면 참무스림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 도덕질, 압박(圧迫), 침략(侵略) 등 부도덕한 짓을 금합니다.

무지(無知)한 사람들중에는 이와 같은 책임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류를 잘못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것만을 금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회의 부패를 가져올 모든 죄를 금합니다.

2. 도 덕

모든 종교적책임과 준수사항(遵守事項)과 숭배의식(崇拜儀式)은 다 도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실로 도덕은 이스람의 주춧돌인 것입니다. 예언자무함

맏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그의 사명의 주목적 (主目的)은 선(善)을 일으키고 악(悪)을 근절(根絶)시키는 일이라고 하였읍니다. 「하디스」에 이런 귀절이 있읍니다. 「나는 완벽한 도덕을 세우도록 보내여졌다.」고.

예언자무함맏은 쟈카트의 도덕적측면(道德的側面) 을 확장(拡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의 형제를 미소(微笑)로 대함은 자선이니라.」「옳은 일을 하도록 말해주고 그릇된 일을 금함은 자선이니라.」「길 잃은 사람의 길을 안내해줌은 자선이니라.」「형제 물그릇에 네 물을 채워줌은 자선이니라.」「맹인(盲人)의 길잡이를 하여 줌은 자선이니라.」

단식만 하더라도 단식의 도덕적원칙이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단지 「굶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자마호멧은 말하기를 「거짓말하기를 그만두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단식은 신에게 보람없는 것으로 보이느니라.」 하였읍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볼때 「순례」할때는 격정(激情)을 억눌러야하고, 유혈사태(流血事態)를 금해야하고, 말과 행실이 순수해야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마호멧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가장 훌륭한 신자(信者)는 어떤사람인가요」라고. 그의 대답은 이러하였읍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니라」고.

한번은 어느사람이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오 신의 사도여! 어느 여인이 있는데 예배와 단식이며

자선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러나 그녀는 날카로운 혀로 이웃을 마음아프게 하였읍니다.」라고. 예언자는 「그녀는 지옥으로 가리라」 하였읍니다.

그사람은 예언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 하였읍니다. 「또 이런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예배와 단식을 하지 않으며, 말라빠진 치스를 자선이라고 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웃을 마음 상하게 한적 없읍니다.」 이에 예언자는 「그녀는 천국에 가리라」 하였읍니다.

이상은 윤리도덕이 이스람교에서 차지하는 예(例)를 말해주고 있읍니다. — 윤리도덕은 신을 섬기는 숭배의 영혼(靈魂)이며 핵심(核心)인 것입니다.

윤리도덕은 형제무스림에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정의(正義)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여야 정의인 것입니다. 옳은 일이란, 여하한 환경에서이건, 종교, 피부색, 민족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 일이어야 비로소 옳은 일인 것입니다.

모든 행동면에서 윤리도덕을 지킬때, 완전무결한 무스림의 귀감(龜鑑)이라 할 것입니다.

١٤٠٠ هـ
١٩٨٠ م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للنشر والتوزيع
شارع فهد السالم ـ عمارة الاوقاف رقم ٤
هاتف ٤١٤٢٢٠ ـ ص. ب. ٢٨٥٧ الكويت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١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كيف تكون مسلمًا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이스람文庫 1

무스림이 되는길

비매품

초판발행일 : 1976. 7. 1
재판발행일 : 1976. 12.
편집인 : 한국이스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행인 : 한국이스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732－21
중앙사서함 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쇄처 : 한국문화인쇄주식회사 : 777－3931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إسلامية ١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كيف تكون مسلماً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